

SM측, 동방신기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식입장

입력 2009. 8. 1. 00:15 · 수정 2009. 8. 1. 08:03

31일 S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5인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사진)가 해체 위기에 빠졌다.동방신기의 멤버 중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을 제외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31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5법원에 냈다.

지난달부터 동방신기는 일부 멤버들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때문에 가요계에서는 동방신기가 곧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멤버들간 불화는 일부 멤버의 가족이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31일 밤부터 비상 회의를 소집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1일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당사는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러우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당사는 동방신기가 개인 혹은 일개 기업만이 아닌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당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화장품 회사를 차려 째깍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한달여 전부터 소속사와의 갈등이 선을 넘어 결국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았느냐는 추측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이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동방신기는 어쩔 수 없이 그룹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동방신기는 어떤 그룹?

=동방신기는 2004년 첫 싱글음반 '허그'를 들고 나와 가요계에 동방신기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트라이앵글' '라이징선' '풍선' '주문-미로틱' 등의 히트곡을 내놓으며 오빠부대를 양산했다.

한류열풍과 함께 2006년 일본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활동했다. 팬 클럽이 80만명을 돌파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스포츠월드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사진=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